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8년 5월 15일 목요일 | 제52호 |



다선사우회 체육대회

지난달 26일 장림 효림초등학교에서 선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선 사우회 체육대회가 열렸다. 다선사우회가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직원 및 가족들이 회사 공식행사 최대인원인 67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부터는 영도공장의 직원들까지 참여했으며, 또 다선 사우회 회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전과 달리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은 모두 참여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 예선경기와 피구 경기, 줄다리기, 족구 결승, 400m 계주,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구는 각 16명의 팀원에 여사원 2명이 포함되어 경기가 이뤄졌고, 400m 계주는 임원들이 스타트를 끊고 35세 이하(男), 여사원,

35세 이상(男), 마지막 주자는 자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줄다리기 역시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각 팀이 50명씩의 인원제한을 두고 경기를 펼쳤다.

본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운동장 한편에서는 번외 경기가 개최됐다. 50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윷놀이와 모든 여성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링 던지기,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그리기 등이 그 주 종목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참가자와 종목들이 많고 다양했던 만큼 상품 또한 풍성했다. 추첨방식으로 진행된 경품행사의 1등은 42인치 PDP TV, 2등은 40만원 상당의 MP4 디지털카메라, 3등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4등에게는 MP4 등이 주어졌다. 또 5등 상품으로

준비됐던 은수저 80쌍은 앞으로도 가족들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부인을 동반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졌다. 번외경기도 그릇세트와 문화상품권, 크레파스 등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뜻에서 협력사들이 음료수와 과자 등 간식들을 준비해서 본사 직원 및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협력체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갇은 말다툼이나 음주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였던 이번 체육대회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제3공장의 새로운 리더 박기제 이사

제3공장은 선보의 초창기 역사를 이끌어왔으며 현재 스트레이너, 사이렌서, 켈로리 파이어 등 기자재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중요한 공장이다. 이 중요한 공장을 더욱 좋은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박기제 이사가 입사 했다. 박기제 이사는 현대 중공업 조선 분야에서 기관실 철의장 및 배관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그 후 80년대 부터 군함과 경비함 건조에서 배관, 기계 분야의 생산관리 업무와 자재관리 총괄 업무등 조선 전반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유능한 실력자 이다. 박기제 이사는 3공장 운영

업무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선보에서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수부직장 국무총리 표창장수여

우리회사 장수부직장이 제 118주년 세계 노동절기념 노동자 대 축제에서 노사 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으로 국무총리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시상은 부산노동자총 협회 명예회장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직접 시상하였습니다.

묵묵히 평생을 한길만 고집한 장수부 직장은 이날 상으로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영혁신 | SB2012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고철, 사용하면 자재



작년과 대비해 2배로 폭등한 원자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공장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다대1공장에서는 200mm이상의 모든 앵글과 파이프 등을 수집해 한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 자리를 지정해 놓았으며, 다대2공장은 오작 또는 폐기된 40, 25A 파이프를 수거해 STR 드레인 파이프로 재활

용하고 있다. 또 SUS지관 홀가공 후 남은 잔재를 용접 패드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구평 공장에서는 잔재들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치하도록 했다. 자투리 잔재의 마지막 자투리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각 공장들이 자투리의

자투리까지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방안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그마한 자재라도 아끼고 재 활용하는 직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끝까지...

지난달 19일에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들이 함께하는 신입사원 연수가 이뤄졌다. 이번 신입사원 연수는 오전에는 호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외부강사들의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금정산성 산행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호포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경영혁신 등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 등으로 외부 초청강사의 교육을 받았다. 오전 교육에 이어 진행된 오후 일정은 금정산성에서 7,8명 남짓의 조원들이 한 팀을 이뤄 총 4팀으로 나뉘어져 목표지점을 지도를 보고, 가는 동안 정해진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도 포함되었다.

윤은석 신입사원은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뤄 미션을 완수하고 가는 게임이 인상 깊었다. 이전의 신입사원 교육에



서 설계팀 외에 품질 보증부를 비롯한 타 공장 신입사원들과 친해질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배려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된 것 같다. 모두 선보라는 이름 안에 뽄뽄



뭉친 만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미션 외에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코스로 산행 순서도 있었고,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의 회식자리도 마련되었다.



취업 약정제 사업 실시

본사가 올해부터 취업 약정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전국 각 대학과 고등학교, 기업체가 그 주축이 된다. 여러 대학들과 고등학교, 기업체 세 군데가 체결해 원하는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소정의 지원금 포함)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본사는 조선분야에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의과학대학교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기계공고) 두 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기계공고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자체적으로 선발해 입사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와 동시에 희망할 시 자동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근무시간을 고려해 회사 근무시간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과목 선정에

관해서도 많은 배려가 지원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학진학 등으로 인한 인력누수 방지에 용이하다. 이전에는 인턴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인력누수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본사는 당당히 치열한 경쟁력을 뽐내고 이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본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업체 견학을 마쳤다. 또 지난 7일에는 본사에 지원한 2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5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면접도 실시했다. 이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실습 겸 인턴체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아름다운 동행



시골 외과의사가 병원이라는 풍경을 통해 바라본 인생 이야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된다. 마치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를 앓듯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던지게 되는 조금은 유치한 질문. 그런데 정말 인생에 정답이란 게 있는 걸까? 몇 년 전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남긴 유명한 법어가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다(山是山 水是水)."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므로, 다만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삶의 진리는 바로 삶 그 자체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시골 외과의사가 병원이라는 풍경 속에서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35개의 에피소드를 엮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가 찾는 삶의 진정성은 삶

그 자체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지은이는 의사로서, 아니 의사이기 때문에 목도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생생한 날 것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해준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예비신부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면 (그녀의 미니스커트), 치매에 걸려 사랑하는 손자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참혹한, 너무도 참혹한), 사할리에 징용군으로 끌려간 남편과 50년 만에 재회했는데 그 남편이 다시금 사고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시골의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우리네

삶의 단면들은 깊은 울림을 주며 참을 수 없는 애진함으로 가슴을 친다. 그것은 지은이가 남다른 해학과 진솔한 글솜씨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나, 하나하나의 인생 그 자체가 그대로 감동이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지은이는 애써 군더더기 설명을 달거나 에둘러서 가는 법이 없고, 어쭙잡은 감상이나 연민에 빠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마치 한 편의 휴먼다큐를 보듯이 장면, 장면을 따라갈 뿐이다. 그런데도 읽고 나면 인생의 깊이 깊은 아우라가 느껴져 숨을 가다듬도록 만든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울다가, 웃다가, 어느새 다시 조용히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행 | 부곡하와이



3父子가 함께하는 여행



지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본사 대표로 추천된 장수복 직장이 국무 총리상을 수상했다. 1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에도 불구하고 21년의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결근, 지각이 없는 성실한 근무태도와 정년이 없는 회사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한 장수복 직장. 장수복 직장은 이러한 국무 총리상 수상만큼이나 특이한 이력을 선보에 또 장차시켰으니, 그것은 바로 3부자(父子)가 한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이다.

국무 총리상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수복 직장의 3부자(父子)가 본사의 소중한 지원으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걸쳐 부곡하와이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총 11명의 가족들은 콘도 2개를 예약해 어른들은 온천을,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겼다. 어린이날 직전에 떠난 여행이라 어른들보다는 어린이 중심이었다고.

장상권 주임은 "아버지 추천으로 회사에 입사해 아버지 포상으로 여행까지 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에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며 수상 소식이 좀 속스러운 모습인 것 같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바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등은 1년차 사원인 동생과 함께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가 상을 받아서 여행을 오게 되었지만 다른 사원들의 가족들도 이러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며, 바쁜 일정 속에 가족들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회사에 감사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어버이날 점심외식

Thank You

당사는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따뜻하고 유연한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이의 은혜를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선보를 이렇게 키워주신 아버지 같으신 분들과 대표이사

와 함께 점심 외식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행사이지만 가족 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 진급자 발표 축하합니다.

- 부사장 승진**
 - 경영지원담당 최상식 전무
- 임원 승진**
 - 구평 생산관리 강보영 부장
- 부장 승진**
 - 본사 영업부 이주일 부장
 - 본사 설계실 장호길 차장
 - 본사 관리부 서재욱 차장
 - 본사 구매부 최동배 차장
 - 본사 설계실 박문영 차장
 - 본사 계획부 김청욱 차장
 - 영도 생산관리 이청수 차장
- 차장 승진**
 - 본사 총무팀 윤강재 과장
 - 본사 품질보증 최경호 과장
 - 본사 설계실 장호신 과장
 - 본사 구매부 강동균 과장
 - 구평 품질보증 김건우 과장
- 과장 승진**
 - 본사 전산팀 안정빈 과장
 - 본사 설계실 고상현 대리
 - 본사 품질보증 백승모 대리
 - 본사 생산관리 신성인 대리
 - 본사 기술영업 김광문 대리
 - 본사 설계실 이종원 대리
 - 본사 관리부 임용기 대리
 - 구평 설계실 민병철 과장
 - 구평 생산관리 김광욱 대리
- 6. 대리 승진**
 - 본사 생산3팀 백갑수 대리
 - 본사 기술영업 이황우 대리
 - 본사 설계실 김경수 계장
 - 본사 설계실 최우호 계장
 - 본사 품질보증 최홍민 계장
 - 본사 품질보증 이창면 계장
 - 본사 혁신팀 이재민 계장
 - 본사 생산계획 공진일 계장
 - 구평 생산관리 윤용남 계장
 - 영도 품질보증 김영호 계장
- 7. 계장 승진**
 - 본사 설계실 이은정 계장
 - 본사 설계실 홍기원 계장
 - 본사 설계실 신인호 계장
 - 본사 생산관리 황 성 4급사원
 - 본사 설계실 오영석 4급사원
 - 본사 설계실 조정현 4급사원
 - 본사 설계실 윤우희 4급사원
 - 본사 기술영업 문해기 4급사원
 - 본사 생산관리 장기봉 4급사원
 - 본사 물류팀 배승용 4급사원
 - 본사 물류팀 한진우 4급사원
 - 본사 설계실 임기섭 4급사원
 - 구평 설계실 황제환 계장
 - 구평 품질보증 김현우 계장
- 8. 4급사원 승진**
 - 본사 영업부 김미란 5급사원
 - 목포 관리부 김희선 5급사원
- 9. 6급사원**
 - 본사 설계실 박규태 7급사원
- 10. 생산주임 승진**
 - 본사 도장2반 박희순 생산직사원
 - 본사 조립1반 이영근 생산직사원
 - 본사 물류반 이상훈 생산직사원
 - 본사 물류반 김기주 생산직사원
 - 구평 물류반 하경환 생산직사원
 - 구평 물류반 박관호 생산직사원
 - 구평 물류반 박춘복 생산직사원
 - 영도 물류반 최성호 생산직사원
- 11. 생산팀장**
 - 본사 조립1반 장상권 생산주임
 - 본사 물류반 조경선 생산주임
 - 본사 물류반 조현상 생산주임
 - 본사 물류반 이창호 생산주임
 - 본사 고객 노재태 생산주임



26호 칭찬릴레이~

대경산업 양정수 반장 (추천인: 이상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술선수병의 대가...



칭찬릴레이 26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선 칭찬받게 돼서 많이 쑥스러워요. 현장에서 초창기부터 있던 사람이고 다같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나니까요. 다들 자신의 분야에서 고생해서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 자체도 사실 인터뷰하기 직전에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사람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바쁘니까요. 저를 칭찬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어떤 마음 기정으로 근무하세요?

초창기에 비해 근무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많은 힘을 쓰고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각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지자 그만큼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직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비중을 두는 편이에요. 그라야 업무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서로간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 평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근무해요. 물론 자신

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 물건 같이 만든다'는 말은 내 능력 밖의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노력한 후의 결과를 떠나서 순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죠.

27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저를 칭찬해 주신 분이 거창하게 저를 칭찬 해주셨는데 정말 칭찬받아야 할 분은 대한 E&C의 김충복 용접사예요. 요즘 칭찬릴레이 주인공들을 보면 반장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장직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조장들이나 조원들을 칭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김충복 용접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용접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사에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용접뿐만 아니라 배관 등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보기가 좋아요. 한마디로 '멀티 플레이어'죠. 요즘은 '멀티 플레이어'들이 각광받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충복 용접사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생산3팀(금천) 신부찬(5/25)
생일	생산3팀(유성) 박철우(5/3) 강병기(5/5)
고객지원팀 권두철(5/10)	품질보증부 최경호(5/23)
구매부 박재홍(5/9)	인사기념일
생산1팀 조봉실(5/19) 지기환(5/20)	생산3팀 이영근(5/1)
생산2팀 장상권(5/20) 진정현(5/31)	생산1팀 유문열(5/3)
생산2팀(신덕) 신용기(5/29)	생산관리 황 성(5/1) 최재호(5/2)
생산3팀(광진) 이주록(5/1)	설계부 신인호(5/1) 박문영(5/16)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역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생생 현장의 소리

'슈퍼(Super)선보인'의 자부심으로

- 김혜성 소장



지난해에 모범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상을 받고 난 후 주위의 반응은?

우선 모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제껏 잘해서 이 상을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선보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는지, 어떠한 계기로 입사하게 된 건지?

제가 선보에 입사한지는 약 6년 정도 됐어요. 2002년 6월 선보 유니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한 후 성동조선 해양에서 일한 약 1년 정도를 일했던 것을 제외하고 그 후부터는 선보 하이택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선보라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 핵심을 담당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에 저의 작은 힘을 더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주로 하는 업무는? 평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세요?

지금은 성동조선해양의 Main Deck Block Unit 조립 및 설치를 하고 있어요. 현대삼호 중공업의 E/R Unit, 선장 Unit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소 일 할 때는 '선보인' 이 만든 Unit가 세계 최고라는 장인정

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어요.

평소에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평소에 성동 조선해양의 Main Deck Block 작업을 하고 있어요. Block을 조립하는 회사가 자주 바뀌고 작업 현장이 여러 번 이동하는 등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적응한다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보 하이택에서 Main Deck Unit를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점차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Block 하나하나 납품 할 때는 '선보인' 이기 때문에 해냈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동시에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선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속도에 발맞춰 선보 역시 무한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선보'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임했다면 만큼 한 번 '선보인' 은 영원한 '선보인' 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선보인' 은 각자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자기발전을 이루고 파이팅 했으면 해요.